

2011년 4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3,172조화)

아름다운 대화법
美しい対話法

말이 짧을수록
言葉が短いほど

분쟁도 적어진다.
争いも小さくなる

항상 신중한 태도로 말하고,
いつも慎重な態度で話して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조심해서 말하라.
競争関係にある人にはさらに用心して話さない

인생을 살다보면 한 마디 더 말할 시간은 있어도,
人生を生きてみれば、一言さらに話す時間はあっても

그 한 마디를 취소할 시간은 쉽게 오지 않는다.
その言葉を取り消す時間は簡単には来ない

아무리 사소한 말도 가장 중요한 말을
いくら些細な言葉も一番重要な言葉を

하는 것처럼 하라.
話すようにしなさい

- 발타자르 그라시안의《살아갈 날들을 위한 지혜》중에서 -
- バルタザール・グラシアン の〈生きていく日々のための知恵〉より -

* 옹달샘 명상 프로그램 중에
* 小さな泉瞑想プログラムの中に

'아름다운 대화법'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美しい対話法'という時間が有ります

말이 말을 낳습니다. 말 한마디로 복도 부르고
言葉が言葉を生みます。言葉一言で福をよんで

화도 불러옵니다. 특히 한 순간의 욕하는 감정으로
災いも呼びます。特に一瞬のかつとなる感情で

불쑥 내뱉은 말은 평생 주워담을 수도 없습니다.
突然吐き出す言葉は、一生拾い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삶을 이끕니다.
美しい言葉が、美しい人生を導きます

나의 말이 곧 나의 삶입니다.
私の言葉が、まさに私の人生です。

짧다

1. [형용사] 短い。
2. [형용사] 足りない; 浅い。

분쟁 [紛争]

1. [명사·하다형 자동사] 紛争; 事がこみ入って争うこと; もめごと。

불러-오다

1. [타동사] 呼んで来る; 呼びつける。

화: [禍]

1. [명사] 災い。

욱-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かつとなる; のぼせる; 頭に来る; 逆上する。

불쑥

1. [부사] だしぬけに現れたり, とびぬけて突き出ていたりするさま:ぬっと; にゅっと。

2. [부사] 前後のわきまえなしにしゃべるさま:いきなり; だしぬ...

내:-뱉다

1. [타동사] 吐き出す。

2. [타동사] 言い捨てる; 言い放つ。

주워-담다

1. [타동사] 拾い入れる。

이끌다

1. [타동사] 引く; 引っ張る。

2. [타동사] 導く。

발타자르 그라시안(Balthasar Gracian)

2011년 4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2,631조회)

명랑한 마음
明朗な心

매일 명랑한 마음과
毎日明朗な心と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偉大な目的を持って、働く人は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다.
いつもその日の主人だ

나는 평범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
私は平凡なことを心に抱く

일상의 평범한 것,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日常の平凡なこと、つまらないことを探求して

그 발아래에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その足元に座る。私に今日を見通し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見ることができる洞察力を与えよ。そうすれば、過去と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未来の世界はあなたが持ってもよい

- 랄프 왈도 에머슨의《스스로 행복한 사람》중에서 -
- ラルフ・ワルド・エマーソンの〈自ら幸せな人〉より -

* 하루하루가 쏘살같이 지나갑니다.
* 1日1日が光陰のように過ぎ去ります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一度流れていけば、二度と戻ってきません

그날 주어진 오직 하나만의 하루! 그날의 주인으로 사느냐,
その日与えられた、ただ一つだけの一日! その日の主人として生きるか

변방에 머문 객으로 사느냐.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辺境の地にとどまった客として生きるか、自ら問い、答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답은 매우 평범하고 하찮은 것에 있으며,
その答えはとても平凡で、つまらないことであり

'명랑한 마음'이 그 시작입니다.
'明朗なこころ'がその始まりです

명랑 [明朗]

1. [명사·하다형 형용사] 明朗。
2. [명사·하다형 형용사] 明るく清いこと。

평범 [平凡]

1. [명사·하다형 형용사] 平凡; 並み; 月並み。

하찮다

1. [형용사] 하치알다의縮約形:つまらない; 取るに足りない; 大したことでない。

탐구 [探究]

1. [명사·하다형 타동사] 探究; 物事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深く研究すること。

꺾기:뚫다

1. [타동사] 貫く; 突き通す; 突き抜く; 貫通する; 突き刺す。

2. [타동사] 見抜く; 見透かす。

변방 [邊方]

1. [명사] ほとりの方面。

2. [명사] 辺境の地。[동의어] 변경(邊境)

Ralph Waldo Emerson

2011년 4월 27일 보낸 편지입니다.(6,580조회)

자살을 생각지 말라
自殺を考えるな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いくら耐えるのがつらくても

자살 따위는 생각지 말라.
自殺の類は考えるな

그대가 자살해 버리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君が自殺してしまえば、この世のどこかで

그대를 사랑하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과
君を愛するために生きている人と

그대에게 사랑 받기 위해 살고 있는
あなたに愛を受けるために生きている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슬퍼질
人の人生がどれだけ悲しくなる

것인가를 생각하라.
ことかを考えなさい

- 이외수의《여자도 여자를 모른다》중에서 -
- イ・ウエスの〈女性も女性をしらない〉より -

* 자살이 번져 있습니다.
* 自殺が広がっています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앞장 서듯 하고
とても有名な人が先立つようにして

수재들의 캠퍼스에도 어둡게 퍼져 있습니다.
秀才のキャンパスにも暗く広がっています

이제는 그 어두운 행렬의 꼬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これからはこの暗い行列の尻尾を切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죽음의 문을 두드리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死の門を打つ魂を揺さぶって起こ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일어나! 정신차려! 죽고싶거들랑 그 마음으로
“起きろ! しっかりしろ! 死にたいなら、その心で

목숨걸고 더 열심히 살아! 제발! 제발!”
命を懸けてさらに一生懸命生きろ! どうか!”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달래고
深い因縁と愛で慰めて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ともに泣いてあ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번지다

1. [자동사] にじむ; 散る; 染みる。
2. [자동사] 広がる; 広まる。
われと思わん者は出て来い → われと思わん者

내로라 하는 사람은 나오라.

앞장-서다

1. [자동사] 先頭に立つ; 先駆ける。
2. [자동사] 中心となって行動する。

수재 [秀才]

1. [명사] 秀才; 学識·才能などのすぐれた人。

행렬 [行列]

1. [명사·하다형 자동사] 行列。
2. [명사·하다형 자동사] 大勢の人が列をつくって進むこと, またその列

두드리다

1. [타동사] 叩く; 打つ。[센말] 두드리다

이거들랑

1. [조사] 이거든と을랑의結合語。子音で終わる体言のあとに付く連結形叙述格助詞(母音のあと...

이거든

1. [조사] 子音で終わる体言のあとに付く叙述格助詞(母音のあとでは이를省くこともある)。
2. [조사] 假定形...

달래다

1. [타동사] なだめる; 慰める; 和らげる; まぎらす。
2. [타동사] なだめる; すかす; あやす; うまく説き伏せる。

2011년 4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5,185조회)

토굴 수행
土窟修行

나는 도자기 굽는 토굴에서
私は、陶磁器を焼く土窟で

8일간 묵언(默言)수행을 했다.
8日間黙言修行をした。

정확히 2008년 4월 15일 밤 10시부터
ちょうど2008年4月15日夜10時から

만 8일 동안 생식을 하며 일체 사람과의 접촉을
満8日の間生食をして、一切人々との接触を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명상을 하며 태어나서부터
しなかった。色々な瞑想をして、生まれてから

지금까지를 하나하나 돌이켜 보았다. 반성도 하고
今までをひとつひとつ振り返ってみた。反省もして

희열도 느끼며 혼자서 바둑을 두듯
喜びも感じえて、一人で碁を打つように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
私自身と対話を交わした

- 한창희의《생각 바꾸기》중에서 -
- ハン・チャンヒの<考えを変えるために>より -

* 오죽하면 토굴에 들었겠습니까.
* どれだけすれば、土窟に帰るだろうか

얼마나 멧힌 것이 많았으면 8일간 입을 달았겠습니까.
どれだけ縛られたことが多かったら、8日間口を閉じられるだろうか

그러나 놀라운 것은, 토굴에 들어갈 때의 울분과 원망이
しかし驚くべきことは、土窟に帰るときの鬱憤や恨みが

토굴을 나올 때는 그 모두가 사랑과 감사의 대상으로
土窟を出るときには、その全てが愛と感謝の対象に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잠깐 멈춤과
変わったという事実です。人はたまにちょっと体を止めることと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오고
自己点検が必要です。心の変化が来て

얼굴 빛깔이 달라집니다.
顔の光が変わっていきます

토굴 [土窟]
1. [명사] 土窟。
도자-기 [陶磁器]

1. [명사] 陶磁器; 陶器や磁器などの焼き物。

급:다1

1. [타동사·ㄷ 불규칙 활용] 焼く; あぶる。

2. [타동사·ㄷ 불규칙 활용] 炭·煉瓦·瀬戸物などを焼く。

ちょうど [丁度·恰度]

1. [부사] 수량·크기·시각 등이 기준·목적에 합치되는 모양. 꼭. 정확히. (동의어)きっちり·ぴったり·きっかり.

2. [부사] 예상·기대·목적에 합치하는 모양. 마침. 알맞...

생식 [生食]

1. [명사·하다형 타동사] 生食; 食べ物を生のままで食べる事。[반의어] 화식(火食)

일체 [一切]

1. [명사] 一切; 全部。

2. [명사] 一切の; すべて; あらゆる。

희열 [喜悅]

1. [명사·하다형 자동사] 喜悅; 喜ぶこと; 喜び。

바둑을 두다. → 두다1

碁を打つ。

오죽

1. [부사·하다형 형용사] どんなにか; 如何に; さぞ; さぞかし; 如何ほど。

울분 [鬱憤]

1. [명사·하다형 형용사] 鬱憤; 内にこもり, 発散されることなく積もった怒りや不満。

원망 [怨望]

1. [명사·하다형 타동사] 怨望; 恨み。

2. [명사·하다형 타동사] うらみに思うこと; 恨むこと

2011년 4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3,028조회)

숲길을 걸으면 시인이 된다
森の道を歩けば、詩人なる

오시프 만델스탐(러시아 시인)도
オシップ・マンデリシュタム(ロシア詩人)も

걸으면서 시를 썼다. 단테도 마찬가지였다.
歩きながら詩を書いた。ダンテも同じだった

니체도 하루에 두 번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ニーチェも1日に2回長い間散策をした

“내 상상력의 에너지가 가장 자유롭게 흐를 때
”私の想像力のエネルギーが一番自由に流れるとき

내 근육 활동이 가장 왕성했다. 내 모습은 종종
私の筋肉活動が一番旺盛だった。私の姿は時々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나는 눈곱
踊っているように見えただろう。私はほんのわずか

만큼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은 채 일고여덟
くらいも疲労感を感じないまま、7か8

시간을 거뜰하게 산속을 걸어 다니곤 했다.
時間を軽く散策に歩いたりした

나는 잠을 잘 잤고 많이 웃었다. 매우
私は、よく寝てたくさん笑った。とても

혈기왕성했고 끈기가 있었다.”
血氣盛んになって、根気があった”

- 애니 딜러드의《창조적 글쓰기》중에서 -
- アニー・ディラードの〈創造的物書き〉より -

* 숲길을 걸으면
* 森の道を歩けば

마음에 평화가 오고
心に平和が来て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誰でも詩人になります

비가 걸어오는 소리도 듣게 되고.
雨が歩いてくる音も聞こえるようになり

나무 위로 지나가는 바람과 나의 귓가를 스치는
木の上を過ぎる風と私の耳をよぎる

바람의 두께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風の厚みが、それぞれ違うということもわかるようになります

저도 옹달샘 숲길을 걸으며 매일 아침편지를
私も小さな泉の森の道を歩きながら毎日朝の手紙を

쓰고 있습니다. 걷기명상을 하고 나면
書いています。歩き瞑想をしてからは

아침편지 쓰기가 쉬워집니다.
朝の手紙を書きやすくなります

종:종 [種種]

1. [부사] 時々; 時たま; たびたび; 折り折り; しばしば; ひょいひょい。

눈곱만하다

1. [관용구] ほんのわずかだ; すずめの涙ほどだ。

귓-가

1. [명사] 耳のふち; 耳のあたり; 耳もと。

스치다

1. [자동사] すれすれに通り過ぎる; かする; 触れる; 擦れる。

2. [자동사] かすめる; よぎる。

일고-여덟

1. [수사] 七つか八つ; 七か八。

거든-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거든하다의強調語:見かけより軽い; 身軽い感じだ; さっぱりした; すっきりした。[작은말]가든하다 [약한말]거든하다

혈기 왕성한 사람 → 혈기

血氣盛んな人

끈-기 [一氣]

1. [명사] 粘り; 粘り気。

2. [명사] 根気。

두께

1. [명사] 厚さ; 厚み。

Annie Dillard

2011년 4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492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하혜련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ハ・ヘリョ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다시 춤추면 돼
もう一度踊ればよい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는
映画'セント・オブ・ウーマン/夢の香り(邦題)'でアルパチーノは

"실수할까봐 걱정돼요"라며 탱고 추기를
"失敗するかと心配です"とタンゴダンスを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한다.
恐れる女性に近づいてこのように言った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실수하면 다시 추면 되니까요.
"恐れる必要はない。失敗したらまた踊ればいから

실수해서 발이 엉키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지금
失敗して足がもつれはじめたら、あなたは今

탱고를 시작한 겁니다."
タンゴを始めたのです"

알파치노가 말한 핵심은 하나다.
アルパチーノが言った核心は一つだ

중요한 것은 발이 뒤엉키는 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
重要なことは、足がもつれることでもなく、失敗でもない

지금 멋진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今素敵なダンスを踊り始めた事実だ

- 서광원의《시작하라..그들처럼》에서 -
- ソ・グワンウォンの〈はじめなさい...彼らのように〉より -

* 누구나 시작의 모습은
* 誰でも始まりの姿は

보잘것 없고 어딘가 엉성합니다.
不十分で、どこかしっくり来ません

그래서 더 주저주저하고 발걸음을 성큼 내딛지 못합니다.
それで、さらに躊躇して、歩みをはっきりと踏み込めません

지금 도전한 그 무언가가 스텝이 엉키듯이 못마땅해도
今挑戦したその何かがステップがもつれるように不満でも

시작한 것만으로도 이미 장벽을 넘어선 셈입니다.
はじめたことだけでも、すでに障壁を越えたわけです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私たちはいつも新しい挑戦が必要です

실수를 해도 춤을 다시 추면 되듯이
失敗をしてもダンスをまた踊ればよいように

언제나 다시 하면 되니까요.
いつもまたすればよいからです

뭔가 하고 있다는 것,
何かしていること

그 자체가 참 행복한 일입니다.
それ自体が、とても幸せなことです

여인의 향기 Scent of a Woman

セント・オブ・ウーマン/夢の香り

영키다

1. [자동사] 영클어지다の縮約形

영클어-지다

1. [자동사] 糸や紐, または物事がもつれて解決がつかなくなる。

보잘것-없다

1. [형용사] 何の値打ちもない; つまらない。[동의어] 하잘것없다

영성-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締めまらない; 間が抜けている; いい加減である; 粗末だ; 不十分である。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げっそりしている; やせこけて見すばら...

성큼

1. [부사] のっしのっし; つかつか。

2. [부사] 動作がよどみなくはっきりしたさま。

ふみ-こむ [踏み込む]

1. [5단 활용 자동사] (힘차게) 발을 내딛다.

2. [5단 활용 자동사] 발을 들여놓다.

못·마땅-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気に入らない; 不満だ; 心に染まない。

장벽 [障壁]

1. [명사] 障壁。

2. [명사] 隔てる壁; しきり

셈;

1. [명사·하다형 타동사] 計算; 計算すること; 算数。

2. [명사·하다형 타동사] 勘定; 算用。